

한국원자력학회

# 학계, 연구계, 산업계 아우르는 역할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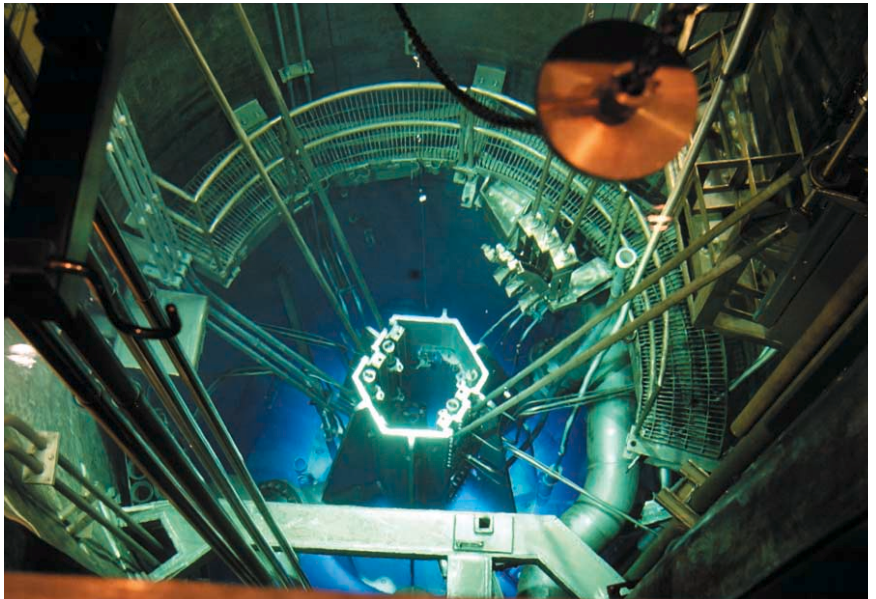
**병**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과학기술인 모두가 뜻하는 바대로 소망을 이루고, 크게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지난 한해를 돌아해보면 고유가 위기,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지만, 술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9년간을 끌어오던 미결 국책사업인 방사성폐기물부지가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 올해도 항상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품고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해 간다는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한다.

이제 국제유가가 7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 나라는 전력의 40%를 원자력발전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전기료의 상승을 최소로 억제할 수 있었다. 원자력기술 자립과 원자력 발전 등 원자력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생산의 원가절감에 기여함으로써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물가는 156%나 오른 반면 전기요금만은 단지 3% 오르는데 그친 배경에는 원자력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고유가와 공급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원자력사업이 새로운 부흥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걸맞게 원자력학회도 배전의 노력으로 학계와 연구계와 산업계를 아울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기여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이 원자력과 원자력 과학기술자를 믿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학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서 할 것이다.

학회 내부적으로는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회지의 SCI 등재사업, 연구부회 활성화를 통한 학술활동의 질적·양적 제고 등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학회 부설 원자력기



술정책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원자력 정책개발 연구를 활성화하고 학회차원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 나라 원자력계의 위상을 높이고 원자력산업계의 해외 진출을 크게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올해로 창립 37주년을 맞이한다. 이제는 양적·질적으로 많이 성장하였으며, 2천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회원들의 오랜 바람이던 학회회관 건립사업이 금년부터 추진된다. 회관건립지역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이미 수렴한바 있으며 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회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 한해 과학기술인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바라며,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



글 | 김시환 \_ 한국원자력학회 회장